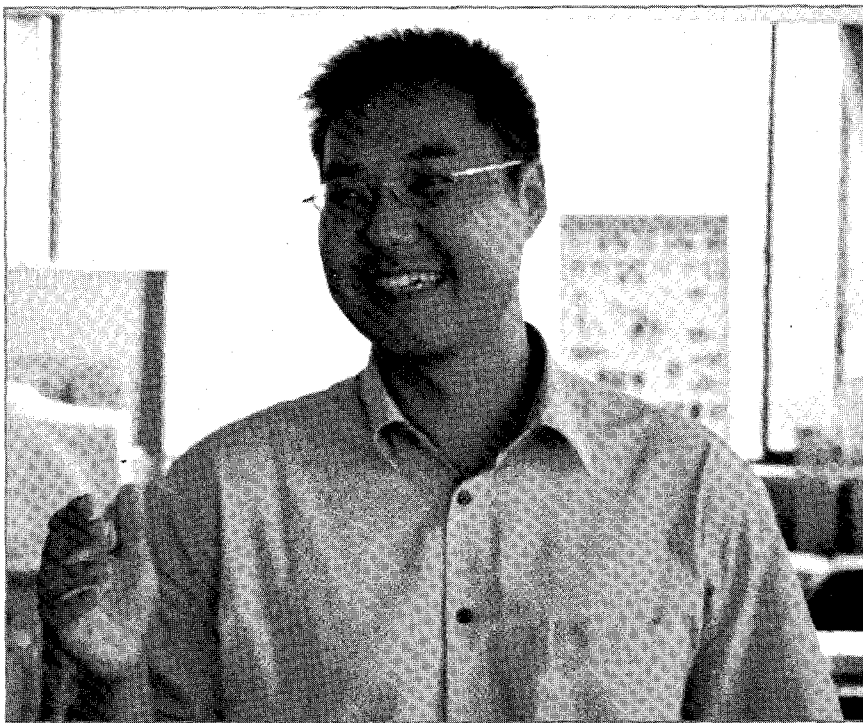


▶▶ 김학주 인주부화장 대표이사

## 채란업 발전, 계란소비 늘어야 이루어진다



경영여건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김학주 대표

그동안 산란계 병아리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인주부화장을 경영하시면서 느낀 소감과 부화장 현황을 소개해주신다면?

김학주 = 듣던 대로 생물을 다루는 사업이라 경험이 적어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 인주

부화장은 양지부화장에서 산란계 부문을 전문화하고자 분리하였습니다. 인주농장에 약 6만여수, 고덕농장에 5만여수가 사육되고 있는데, 2개 농장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올인 올아웃 형태로 종계가 관리되어 품질 좋은 병아리 공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인주부화장은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백색산란 실용계를 공급하고 있는데 반응과 사업성은?**

**김학주** = 매년 적자를 감수하면서 백색계 종계를 유지한 것은 단일 계종의 단점을 보완하고 가금티푸스 대책, 기능성 계란 생산 유도 등 채란업 발전에 일조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유지해왔으나 수요가 없어 현재는 식란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8월15일 이후 수입이 중단된 상태로 사업지속에 대해 재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백색계 공급이 국내에서 중단 위기에 놓여있어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좋은 품질의 산란실용계를 생산하기 위해 인주부화장에서 종계관리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특별한 사양관리가 있다면?**

**김학주** = 병아리 품질은 종계관리에서 시작되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좋은 종자, 좋은 환경, 좋은 사료를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문사료(OEM)로 주령별, 계절별로 요구되는 영양함량을 맞추어주고 있습니다. 질병도 정기적으로 채혈검사를 의뢰하여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외부 컨설팅제도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종란내 백신접종을 실시하여 우수한 병아리 품질이 유지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미 업계가 계란 소비침체를 감안하여 40만 수대 종계 유지를 약속한대로 저희도 당초에 한 약속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종계가 증가하면 이어 실용계가 증가하여 계란 생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계란 소비가 늘지 않는 한 무리하게 종계를 늘리는 경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정용 계란 소비보다는 업소용이나 가공용 소비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란 소비 확대를 위해 어떤 방향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한 말씀 해주신다면?**

**김학주** = 사회가 다원화되고 주부들의 사회생활 참여도가 높아진다면 업소용이나 가공용 소비 증가는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에는 주부를 대상으로 계란의 우수성을 인식시키는 정도로도 소비홍보 효과를 거두었지만 이제는 새롭고 편리한 제품이나, 업소에서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을 만들어 공급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공란의 경우 품목별로 소비편차가 심해지는 것도 관심을 가지고 극복해 나가야 하는데 난황관련 제품 수입량이 매년 증가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품질 좋은 병아리를 생산 공급하여 농가소득도 높아지고, 인주부화장도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김학주** = 부화·종계업을 하는 입장에서 꼭 이루어야 할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물량 경쟁보다는 품질 경쟁이 정착되어 서로가 필요한 입장으로 발전해간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주부화장은 채란농가 수익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면서 경기침체로 소비가 위축되고, 사료 등 생산 원재료비가 상승하여 부화·종계장도 어려움은 있지만 채산성 악화로 어려움이 더욱 큰 채란업의 현실을 감안하여 위기 극복에 미약하나마 힘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정리 | 김용화 부장) **양계**